



5·18사적지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결과 기아보호소, 별관, 영안실 등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기자

옛 적십자병원 안전진단 “대부분 철거”

본관동·별관·창고 등 D등급 보수 공사는 원형보존 어려워 오는 4월 최종 심의 결과 주목
현형의집·문화시설 활용 검토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살렸던 사적지 제11호 옛 광주 적십자병원이 정밀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철거가 권장되는 수준으로 확인돼 원형보존에 난항이 예상된다.
원형을 보존할 경우 일부 건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며, 보수·보강에 들어갈 경우 공사 규모가 커져 원형 보존이 어려워 것으로 보여 5·18기념사업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적십자병원의 구조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5개 건물 중 본관동·별관·창고·영안실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E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 D등급(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불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한다.
기아보호소(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33㎡)는 내력벽 균열과 누수, 상부슬래브 철근 노출 등 노후화가 심각해 철거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별관(지상 2층, 165㎡)과 창고·영안실(각 지상 1층, 연면적 119㎡)은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조적조 방식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불가능해 역시 철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 3,501㎡에 달하는 본관동은 D등급을 받아 사용제한 또는 내진보강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다.
건물 대부분이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가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는 두 가지 방안을 5·18기념사업회에 전달했다.
제1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만 내진보강 후 사용하고,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사용을 제한해 원형을 보존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보수보강을 골자로 한 방안에, 병원 남측(응급실)의 조적조를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로 개축해 전체 활용을 가능케 한다는 제안이다.
1안을 택할 경우 본관동의 극히 일부만 사용이 가능해 방문자센터와 현형의집으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안의 경우 방문자센터와 현형의집에 더해 문화예술장작소, 문화산업기업 인큐베이터, 외부 열린마당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원형 훼손이 불가피하다.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될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는 오월단체의 공법단체 승인이 완료된 이후인 오

는 4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전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진단 결과 조적조가 많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의료진들이 부상자 치료에 헌신하고 현형행렬로 뜨거운 시민정신을 나눈 역사적 공간으로, 서남학원이 지난 1996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매입해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운영하다 2014년 휴업했다.
서남학원은 경영 부실 등으로 2018년 교육부로부터 폐교명령, 처분허가 승인을 받아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위해 2019년부터 적십자병원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아파트 건립 등으로 사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5월 단체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광주시가 지난해 7월 88억5,000만 원에 공개매입했다. /오선우 기자

시,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모집

초1 학부모 근무 기업 대상 인건비 2개월간 66만원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5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신규 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임인 초등 1학년 입학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장으로 광주시 관내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며, 오는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자녀로 둔 직원의 오전 10시 출근을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는 선착순 100건에 대한 기업을 선정하고, 학부모 직원의 2개월 오전 10

시 출근시간을 준수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월 33만 원씩 2개월간 총 66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단, 한부모 직장맘(대디)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총 9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등 6개월 미만 근속자도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별도 사업장에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 한 명당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순차지원이 가능하다.
소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을 연달아 쓰거나 간격을 두고 총 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사정상 오전 근무가 필수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해 오후 5시 조기퇴근을 사용하고 신청하면 된다. 회사별 특수업종일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만지원센터(062-613-7981)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보유 드론, 예산 4억 절감

전남도는 자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드론)로 업무에 필요한 항공영상을 직접 촬영, 다양한 분야에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도 소속 부처와 시군의 항공영상 촬영 수요를 조사해 직접 촬영한 최신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한 항공영상 자료는 ‘전남도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도 산하 모든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적측량, 건축경관 심의, 확산광량 건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등과 관련한 민원 해결과 주요 개발사업 정책 결정 등에 필요한 120개소, 137.7km를 직

접 촬영해 행정업무를 지원했다.
또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도내 주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설명회, 사업실시계획 등에 항공영상 자료를 제공해 활용하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첫 도입한 ‘드론운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촬영 신청과 자료 제공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할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해 행복 도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시립발레단·창극단 예술감독 선임

박경숙 교수·김규형 이사장
광주시는 시립발레단 신임 예술감독에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 창극단 예술감독에 김규형 한국모듬북회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연말 임기가 만료된 시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시립창극단 유영애 예술감독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회관 추천 3명과 예술단 추천 3명 등 총 6명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빙위원들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을 거쳐 발레단과 창극단의 예술감독 후보로 각각 2명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청빙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2명 중 1순위로 추천된 박경숙 교수와 김규형 이사장을 신임 예술감독으로 최종 선임했다.
박경숙 신임 발레단 예술감독은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발레단 수

석단원 및 광주시립발레단 제2대 단장, 한국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박 신임 감독은 직업발레단이 요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그간의 활동으로 확인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규형 신임 창극단 예술감독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중앙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악장을 역임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동조제 이수자이고, 춘향가 예능 보유자였던 고 동초 김연수



박경숙 김규형
명창의 막내아들이다. 고법과 타악 분야도 섭렵하고 현재 한국모듬북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감독은 실기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기철 기자

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여 대상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농업법인이다. 다만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 기준에 따라 연리 1%인 ‘중·소규모’와 연리 2%인 ‘대규모’ 농가’로 나뉘며,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이다. 총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융자 지원하며, 내년 총 2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각 시군이 해당 지역 참여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이전·개보수를 비롯해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및 분뇨 처리시설, 경관 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 설치를 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이를 간절어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두고들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